



세계화의 원년과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The 1st year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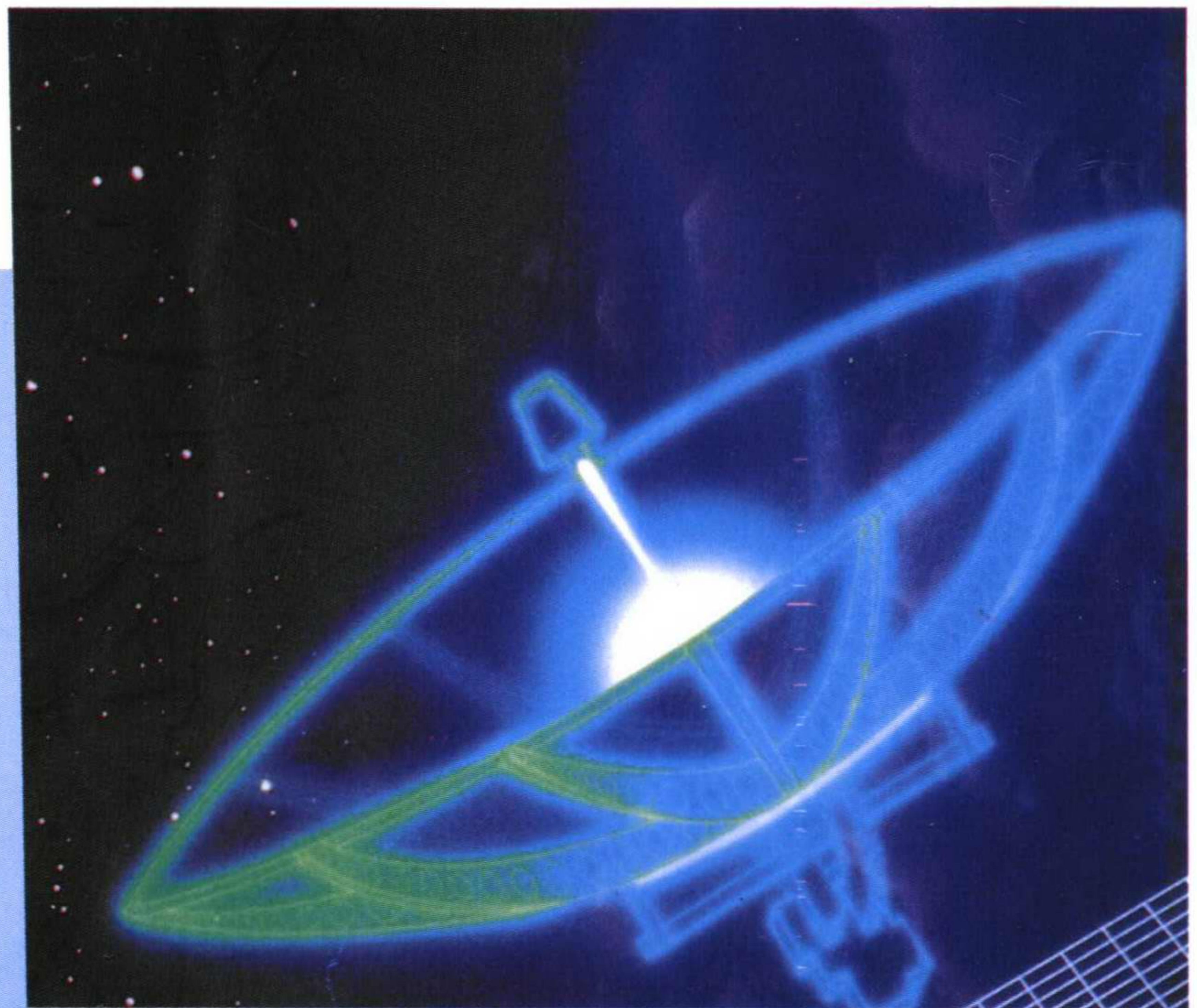
천조운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 부단장

Cheon, Jo-u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

Vice-chair.



세계는 지금 국경없는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나라와 나라사이, 지역과 지역사이에 치열한 무한경쟁이 시작되었다. 21세기의 시작을 5년앞에 둔 지금, 신한국 건설을 위해 그 동안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세계화(Globalization)의 추진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진국 진입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세계화는 정보통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전은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세계화의 진전은 고도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광통신, 인공위성, 컴퓨터 등의 발달로 정보통신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인간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기업은 세계시장을 놓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통신은 통신과 컴퓨터, 통신과 방송의 융합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혁명은 또한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사회의 핵심요소는 에너지, 물류유통망(철도, 도로, 항만 등)이었으며 중앙 집중적인 관리와 공급자 중심의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가 그 특징이다.

이 시대의 전기통신은 단순음성의 전달인 전화가 주요 서비스이고 방송도 매스미디어 형태의 일방적인 전달체제였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문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핵

심요소로 등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의 활발한 생산과 유통에 의해 분권화가 촉진되고, 소비자 중심의 사회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전화 위주의 전기통신망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이 가능한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송은 다량의 채널과 쌍방향 기능을 갖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TV 또는 VOD(Video On Demand)의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정보사회에는 전형적인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보다 정보가 더욱 중요한 생산요소일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성숙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정보·문화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더우기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정보와 문화는 아무런 제약없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와 문화에서만은 기존의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술혁신의 영향이 기술 그 자체의 범위를 뛰어넘어 모든 경제행위로부터 인간의 사고체계 및 활동체계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을 말한다.

따라서 패러다임 변화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광범위한 경제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제도(Institution)의 혁신도 이루어져야 한다.

전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 경제체제의 정비능력에 달려있다.

혼돈과 창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대응능력이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좌절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금년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해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란 음성·문자·영상 등 여러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언제 어디서나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통신망뿐만 아니라,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주변환경인 사회제도·문화·이용관습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 경제체제의 변혁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수요와 공급측면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정보통신기반 정비계획인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은 정보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이의 구축은 정보의 산업화, 산업의 정보화, 사회의 정보화, 행정의 정보화를 가속시키고 그 결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자유무역체제의 진전으로 인한 세계화와 이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 각국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정보화된 국제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과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우리가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이다.

아울러 선진국과 대등한 시점에 21세기 정보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국경없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의 목표는 음성, 문자,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고속도로를 2015년까지 구축하여 세계화를 위한 정보사회의 국가기반구조를 확충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를 구현하고, 향후 최대 유망산업이 될 멀티미디어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여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측면에서의 정보화 촉진정책과 공급측면에서의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상호 연계 추진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정보화 지원과 민간부문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공급능력을 제고하여 세계시장으로의 진출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둘째,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제약없이 정보통신산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사업에 진입규제를 과감히 완화 내지 철폐하고 공정

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 관련법령·제도를 정비·보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기술개발, 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여건정비를 위한 환경조성의 4가지 분야에 대하여 기반조성단계('95~'97), 확산단계('98~2002), 완성단계(2003~2015)의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올해는 본격적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원년으로 중점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다.

초고속정보통신시험망을 서울과 대덕간에 구축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전국 12개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통신망을 우선 건설하여 기존의 주민등록전산망 등을 수용하고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제공한다. 초고속공중통신망은 대량의 통신 수요지역부터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첨단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한다.

이를 위하여 대덕연구단지를 정보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고 초고속정보통신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정보이용 능력제고와 이해증진을 도모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이용기술개발 등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비가 없

어서 연구개발을 못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소규모 S/W업체 등에 연구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은 세계화를 향한 정보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전략이자 차세대를 위한 장기적 국가전략이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이 완료되는 2015년이 되면 자라나는 세대에서 세계화의 초석이며 원동력이 될 기틀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세계화를 위한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통치차원에서 인식하여 새롭게 태어난 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정보통신 관련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및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성공적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패러다임의 변화시기에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개혁을 이루지 않고는 세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정보·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는데 전국민의 지혜를 동원하여 함께 노력하여야겠다. **DC**

